

「모든사람의 건강」(Health for All) 목표 어디까지 왔나?

대한산업보건협회 전문위원
백 영 한

이 글의 내용은 WHO 기관지-World Health Forum, Vol 14, NO. 4 pp 333-345, 1993 "Health for All : how it looks now"에서 발췌한 것이다.

Alma Ata에서 합의된 「모든 사람의 건강」 전략의 실천에 대한 평가를 가능케 하기 위해 이미 선정된 지표(indicator)에 근거하여 WHO 회원국은 자료를 제출하기로 합의한바 있다. 1985-1990년간의 성과의 평가를 위해 151개 회원국이 국가보고서를 제출하였다. 보고서들을 검토한 후의 결론적인 평가는 「세계적으로 건강상태는 대체로 개선을 보였으나 최저개발국과 선진세계 사이의 격차는 더욱 벌어졌다」이다.

몇몇 지표별로 도표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영아사망률

제1도에서 보는바와 같이 1985년에 비해 1991년도의 영아사망률은 모든 국가에서 소폭으로 감소되었으나 최저개발국가와 선진국(개발시장국가) 사이의 격차는 약 8:1이고 모든 개도국(開途國)과 선진국간의 격차는 약 4:1이었다. 최저개발국에서는 임신기간과 출산시의 부적절한 관리, 부적절한 임신간격, 지나친 임신의 빈도, 모성의 임신 전의 열악한 건강 및 영양상태가 높은 영아사망률의 원인이었다.

2. 개도국과 선진국에서의 사망원인(연당추산)

제2도에서 보는바와같이 개도국과 선진국에서의 1990년도의 사망원인별 추산사망수에서 뚜렷히 나타난 것은 개도국에서는 감염 및 기생성질환이 아직도 압도적으로 많았고 선진국에서는 순환기계질환과 암이 주사망원이었다.

3. 영아에 대한 예방접종

WHO의 주력사업인 예방접종 확대사업(Expanded programme on Immunization)에 힘입어 영아에 대한 예방접종수의 증가는 괄목할만 하다. 1985년과 1991년 사이의 디프테리아 예방접종은 전체영아의 47%에서 83%로, BCG는 45%에서 90%로 증가되었다. (제3도와 제5도 참조). 개도국과 선진국 사이의 예방접종 시행의 격차는 좁아졌으나 아직도 최저개발국가에서는 다른 국가군에 비해 진도가 느리다. DPT 예방접종의 실적을 비교하면 제3도와 같다.

4. 환경위생

(급수)

1985년과 1990년 사이에 도시·농촌간의 안전한 급수 및 위생상황의 격차는 서서히 줄어들었다.

1990년 개도국에서 안전한 음료수의 공급과 보급은 1985년도의 주민 68%에 비해 75%로 증가되었다. 또한 개도국에서 적절한 배설물처리의 수혜(受惠)는 1985년 주민의 46%에서 1991년에는 71%로 증가되었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지구 인구의 절반 정도는 안전한 급수와 적절한 위생시설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1990년 도시인구의 81%, 농촌인구의 58%가 안전한 급수를 받았고 도시인구의 71%, 농촌인구의 48%가 적절한 위생시설을 이용하고 있었다(제4도 참조).

5. 1차 보건사업의 전달

제5도에서 보는바와 같이 1차보건사업은 확대되었으나 아직도 1차보건 전달은 사업요소별로 보면 수혜(受惠)에 있어서 격차가 크며 포괄적 보건서비스에 도달하기에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6. 총괄적인 건강상태

영아사망률, 평균수명, 신생아의 체중 등의 지표에 비추어 볼 때 전세계의 건강상태는 현저히 개선되었다. 선진국과 개도국의 영아사망률의 격차는 좁아졌지만 최저개발국과 개도국 사이에서는 벌어졌다(제1도 참조). 36억의 인구를 가진 91개국에서는 1990년에 평균수명이 60세를 넘었는데 10년전에

는 27억을 가진 74개국이 60세에 도달하였다. 최저개발 37개국에서는 1990년 단 하나의 나라에서만 영아사망률이 50% 이하였고 단 두나라만이 평균수명이 60세를 넘었다.

감염성 질환과 더불어 퇴행성 질환은 개도국에서 이종의 부담이 되고 있다. 이전에 비해 개도국에서도 심장혈관질환과 암이 사망원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져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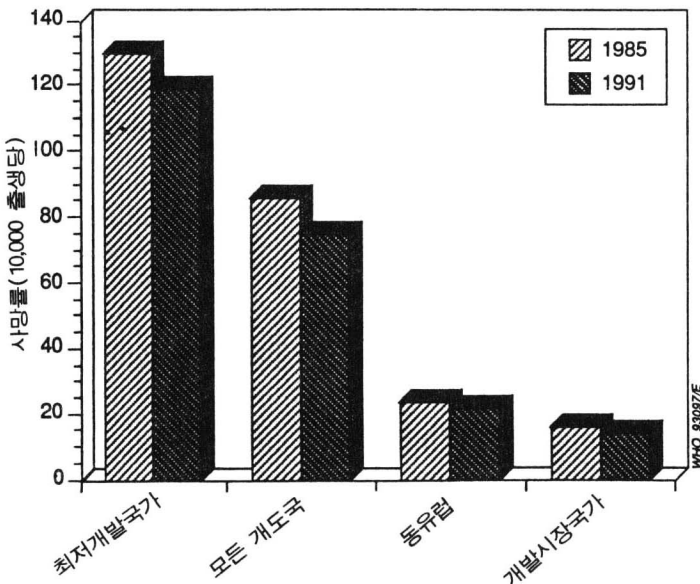
열대도처에서는 열대병이 극성을 부리고 있으며, 20세기중 콜레라가 처음 미주대륙(Americas)에 상륙하였다. 황열(yellow fever)과 뎅기(dengue)의 유행은 증가추세에 있고 말라리아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어 가고 있다. 주혈흡충증(schistosomiasis)은 새지역에 정착되고 리-쉬마니아증(leishmania)은 증가되고 있다.

AIDS의 세계적 유행(pandemic)은 지구전체에 퍼져가고 있으며 HIV(AIDS 병원바이러스)의 합병증으로 폐결핵이 증가되고 있다. 폐렴과 B형 감염은 아직도 심각한 위협으로 남아 있다. 만성전염성질환은 특히 개도국에서 널리 퍼져가고 있으며 암 환자의 수는 선진국에서, 보다 높다. 여성간에서는 폐암이 여성간의 흡연증가로 선두주자였던 유방암을 앞지르고 있다. 당뇨병은 도처에서 증가되고 있으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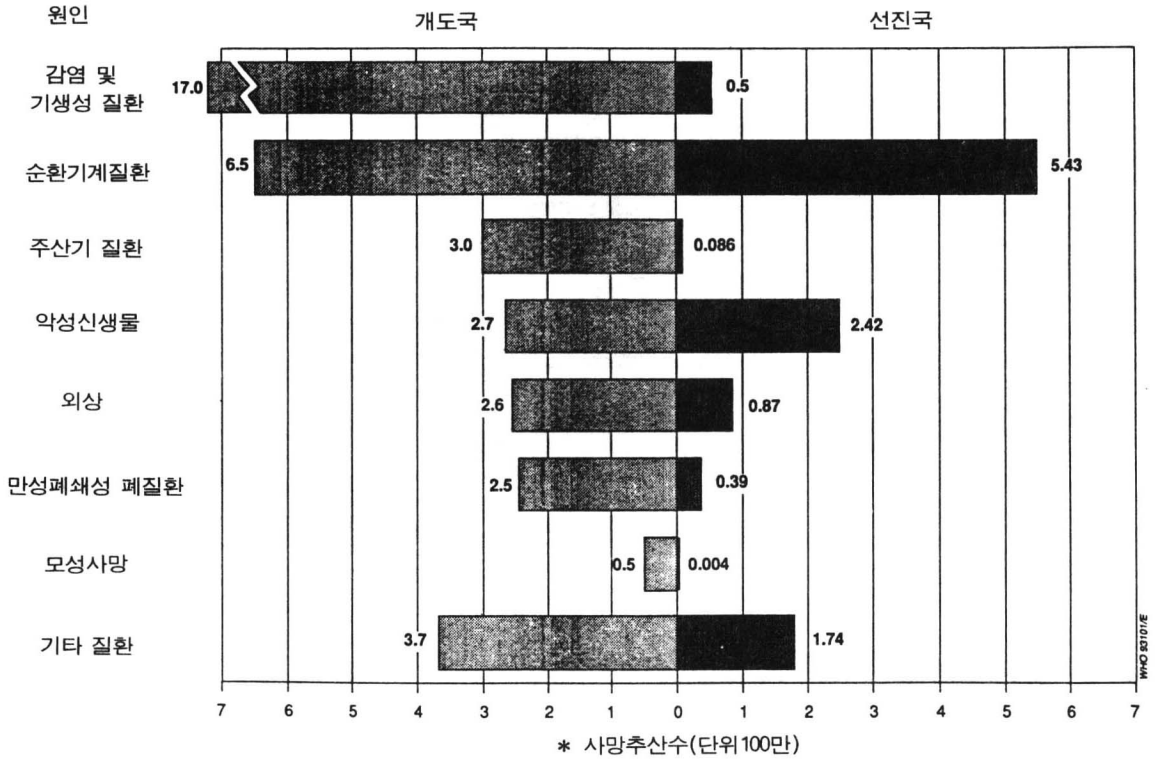
과거에 비해 백내장에 의한 실명이 늘고 있다. 알코올 관련질환은 개도국에서 상승하고 있으며 선진국에서는 정신건강문제와 자살의 원인이 되고 있다. 보건교육에 힘입어 동유럽을 제외한 선진국에서는 심장혈관질환이 쇠퇴해가고 있고 몇몇 선진국에서는 흡연인구의 감소로 남성간에 폐암의 발생빈도가 줄고 있다.

1990년 세계적으로 모성사망률은 10,000명 출산당 370명이었는데 개도국에서는 선진시장경제국에 비해 13배나 높았다. 5세 미만 소아사망률은 선진국에 비해 개도국에서는 6배나 높았고 최저개발국에서는 11배나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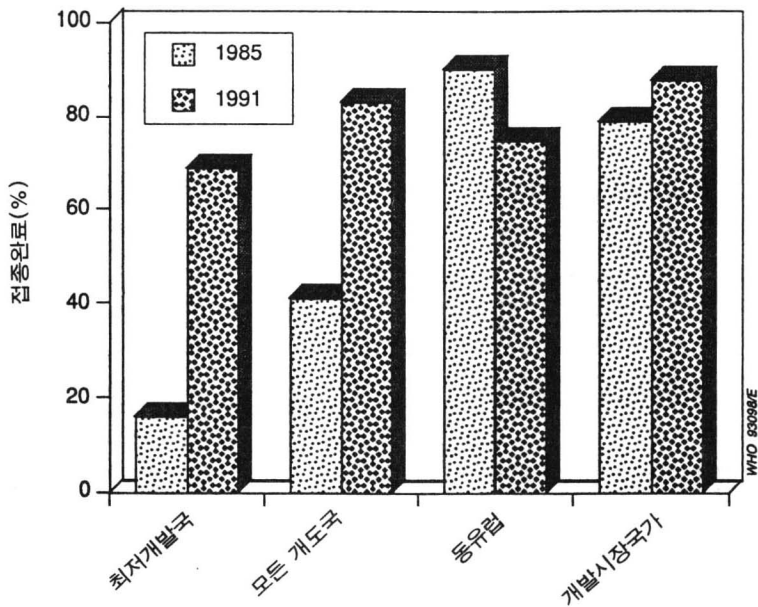
제1도 영아사망률, 1985 및 19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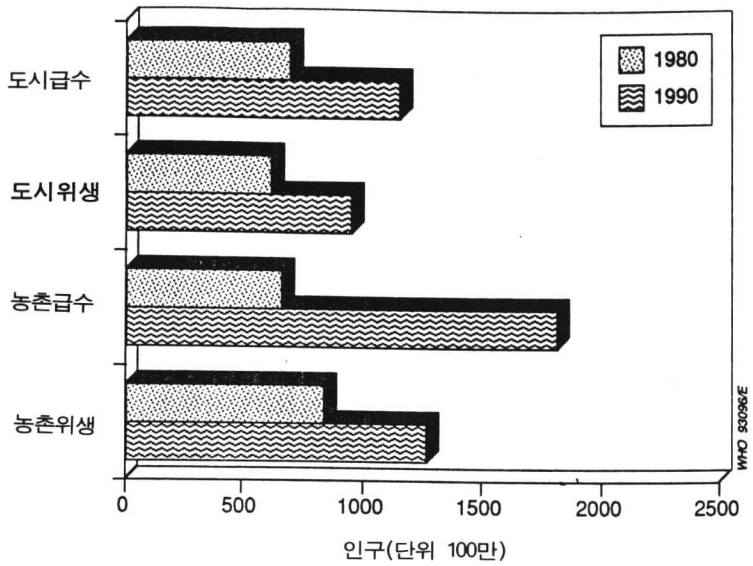
제2도. 개도국과 선진국에서의 사망원인(연당추산), 1990



제3도. 영아에 대한 DPT 예방접종실적, 1985 및 1991



제4도. 개발도상국가의 급수 및 위생 상황, 1980-1990



제5도. 개발도상국에서의 1차보건사업의 전개, 1983-1985 및 1988-1990

